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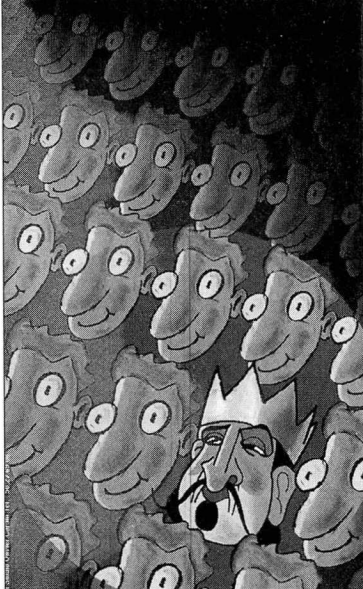
# 만화산업의 새 가능성 보인 국제 페스티벌

##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살롱' 과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을 둘러보고

한창완

만화이론가·대전전문대 강사

Festival international du cinéma d'animation



지난 6월초에 열렸던 95년도 '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포스터.

만화가 지니고 있는 첨단문화산업의 첨병 역할은 그 장르 자체가 보여주는 예술로의 창의력으로부터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예술의 대중화까지 다양한 순기능적 요소를 사회구조내에 상징한다. 복합매체로서 만화의 역할을 다양하게 보여주며, 각 작품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의 덩크 탱크 역할을 시도하는 국제 페스티벌이 해외에서는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만화 페스티벌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문화산업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디자인력이나 색채감각, 실험성 강한 예술작품의 전통들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가 된다.

### 도시 전체를 페스티벌의 공간으로 활용

프랑스 앙굴렘이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197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출판만화 페스티벌의 공식명칭은 '앙굴렘 국제만화살롱전'이다. 이 행사는 매년 1월말경에 진행되는데, 올해로 22회째를 맞고 있다. 17회 이후부터(1991년)는 국가에서 '국립만화이미지센터'를 앙굴렘시에 설립해 주었고, 이 문화시설은 83년에 설립된 프랑스 유일의 만화 학교인 앙굴렘 만화학교와 만화박물관을 포함, 유럽만화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도시 전체를 페스티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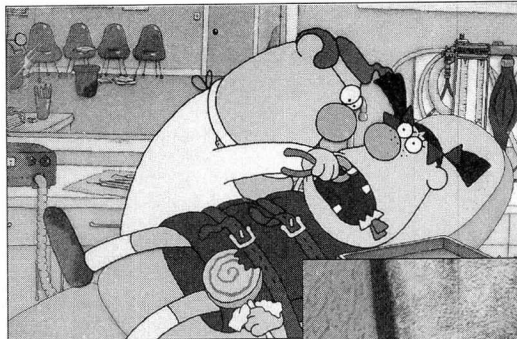
프랑스 '안시' 라는 소도시에서는 2년마다 전세계 애니메이터들과 만화영화기획자, 만화영화제작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대행사가 열린다. 20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은 1,240여편의 작품이 출품, 상설 견본시장에서 상호계약도 이뤄졌다. 이러한 페스티벌은 곧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연계되는 만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체가 도입된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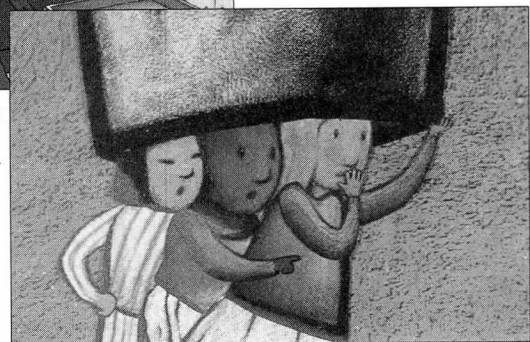
또한 국제만화이미지센터를 중심으로 앙굴렘미술관, 종이박물관, 레 플라토로 불리는 문화센터, 시청과 우체국, 미술·만화학교, 산업센터, 관광센터, 호텔 등의 공공건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페스티벌의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관람하다보면 전체 시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시내버스는 행사 기간중 무료이며, 시가지의 모든 사인보드와 상점의 간판, 광고문안과 도로표지판까지 만화를 응용 설치해 치밀한 준비를 보였다.

이 행사는 크게 출판물과 만화상품의 전시 및 판매, 유명작가와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한 각각의 전시, 그리고 만화의 역사를 소개한 전시와 축제분위기 유지를 위한 대중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매년 초대국가를 선정하고 공통주제를 정하여 특색있는 기획전시를 추진하는데, 올 22회 행사에서는 이탈리아의 만화를 소개했다. 특화된 주제로는 성(性)을 중심으로 에로틱한 만화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표현방식으로서의 행사진행을 유도하였다.

일본도 3년전에 초대국가로 지정되어 일본 작가들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이로부터 일본만화만 좋아하는 매니아 계층을 프랑스에도 다수 실존시키게 되었다. 지속적인 접촉과 진출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고품질의 만화가 앙굴렘에 초대되는 행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출판만화 페스티벌은 결국 만화출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만화도시의 수성과 발표를 통해 출판으로 연계시키는 사회분위기를 강력하게 유도



제20회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Bob's Birthday>>(위)와 <<WHY?>>



하기도 한다.

다양한 출판만화 앨범과 캐릭터 상품, 그리고 고품위 만화잡지의 출현 등을 이러한 페스티벌을 통해서 구현하는 프랑스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심적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열고 있다. 안시(Annecy)라는 소도시에서는 2년마다 전세계 애니메이터들과 만화영화 기획자, 만화영화 제작업자, 애니메이션 매니아와 전공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린다. 이 페스티벌의 공식명칭은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올해로 20회를 맞고 있다. 홀수년도의 5월말부터 6월 초에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에는 올해(5월 30일~6월 4일) 1,240여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모두 작품경선에 참여하였다.

우선 페스티벌 개최전까지 접수된 단편·중편·장편·TV시리즈물과 학생작품 등을 심사위원단에서 1차로 선발하고, 이로부터 본선에 진출한 20여편의 작품들을 행사기간 중 도시 전체의 대극장과 소극장에 분산하여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속 상영한다. 애니메이션의 상영뿐만 아니라, 만화산업과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특수기법 등 다양하게 접목가능한 주제를 설정하여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시간대별로 연속 진행하기도 한다. 또 MIFA라는 만화영화 상설견본시장을 개최하여 작품의 상호계약과 홍보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게끔 기획하였다.

### 국내 만화산업의 독립된 기획력 필요

결국 이러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세계 애니메이션의 현황 및 기술수준과 연출수준을 짧은 시간에 조망해 볼 수 있으

며, 학생들의 실험작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인간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이 적극적으로 대두된다. 이는 초기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자본의 허상을 마르크스가 이데올로기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한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냉전이라는 인류의 정치구도를 형성시켰듯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시점에서 자본의 개념 정의가 인간의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로 집중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자본이 실현시킬 수 있는 창의력과 디자인력을 최대한으로 응용하고, 예술적 수준과 대중적 수준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확보해가는 만화라는 독립된 매체에 인간자본이 집중된다. 이러한 인간자본의 집중이 곧 애니메이션을 가능케 하는 출판만화의 귀결점이며, 공격지점이다.

수작업의 정교함과 전문인력의 품격함에 대해서만큼은 자신하고 있는 국내 만화산업의 역량을 이제 독립된 기획력의 축적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만화로부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연관 부수산업까지의 덩크 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자본의 구심력이 작동해야 한다. 이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 국제만화페스티벌(SICAF)'로 구체화될 것이며, 경쟁력과 상품성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출판만화의 질적 향상과 시장성 확보를 위해 정부·제작자·독자 3위 일체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